제주어의 문화정책 방안*

문 순 덕**

목 차

Ⅰ. 제주어 논의
Ⅱ. 제주어의 어학적 가치
Ⅲ. 제주어의 활용 실태
Ⅳ. 제주어의 보존·활용 방안
Ⅴ. 제주어 문화정책
Ⅵ. 제주어의 가치 논의 초월

Ⅰ. 제주어 논의

제주어의 우수성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국어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그동안 지역어연구자들만의 관심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영어공용어 논의가 진행되자 한국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어의 가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제주어를 독보적으로 살리기보다는 외국어전용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겪게 되는 혼란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제주어가 사랑받았으며,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언어의 문제가 급부상했다. 즉 영어공용어화 문제가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왔다.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영어공용어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면서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을 언어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때부터 언어 관련 세미나의 끄트머리에 제주어를 상제함으로써 마치 제주에서는 지역어의 보존에 애정을 갖는 것처

---

* 이 글은 <제주어 보존 및 활용방안>학술회의(제주국제협의회·제주대국어문화원·KBS제주방송총국 공동주체, 2008. 10. 29.)에서 「제주어, 언제까지 보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하나」로 발표한 내용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 제주발전연구원

럼 비춰졌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역문화와 지역어의 가치 논의는 주로 '현실, 보존방안'에만 머물렀지만 이제는 대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필자도 이런 유형의 대안들을 발표하면서 논의점을 정립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실험해 보았다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단조로운 글만 제시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제주어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고 귀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해서 한글의 우수성 등 애정을 표현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 한글주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관련 단체와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용어로써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각각의 지역어가 있으며, 활용과 보존은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모든 분야는 당사자들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지만 언어는 다르다.

한국어에는 한국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듯이 제주어에는 제주사람들의 정신(삶의 역사)이 배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언어는 의사소통수단이고, 정보전달의 기능이 있으며, 공기와 같아서 귀중하지만 그 가치를 망각해서 홀대하는 것 같다.

국가의 힘은 언어라 생각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어나 지역어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제주어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교육과 홍보 등 문화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Ⅱ. 제주어의 어학적 가치

제주어는 제주10대 문화상징으로 선정(2008년)될 정도로 제주사람들의 혼이 담겨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제주도' 하면 풍광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자연유산은 유형문화재여서 가시적인 화폐 가치가 드러나지만 제주어는 무형문화재이므로 드러내놓고 그 존재를 알리고, 사용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제주어를 고어(古語)의 보고라 한다. 이는 중세국어의 모습이 지금까지 쓰이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제주어 이외에도 각 지역어는 한국어의 어원을 밝혀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어 '마(장마), 잇다/이시다·싯다/시다(있다), 하다(多 : 많다), 귓것(귀신), 우테(위에), 눞(낮)' 등은 중세국어의 어형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제주여성문화유적』을 보면 표준어 '연자매'가 마을에 따라서 '물ᄀᆞ량, 물ᄀᆞ랑, 물ᄀᆞ레, 물방에, 물뱅이, 물항, ᄀᆞ레왕' 등으로 불리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되어서 2006년 4월에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으로 '제주지역어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9월에는「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2008년 5월에는 <제주어심의위원회>가 조직되고,「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안)」(2008~2012)이 만들어졌다.

제주어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어휘와 문장을 잘 다듬고 정리했으며, 이런 말들이 사라지기 전에 채록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조사보고서
『국문학보』(4~16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2~2004),『백록어문』(1~24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2007)

② 국어학 자료
『제주도방언연구 수정본 : 자료편』(현평효, 태학사, 1985),『제주방언연구 : 자료편』(박용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8),『제주의 언어 1』·『제주의 언어 2』(강영봉, 1994/1997, 제주문화),『제주어사전』(현평효 외, 제주도, 1995),『제주도속담사전』(고재환, 제주도, 1999),『제주도 오롬의 종합적 연구』·『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II』(오창명, 제주대출판부, 2007),『제주말큰사전』(송상조, 한국문화사, 2007)

③ 제주민속자료
『제주도민요연구(上)』(김영돈, 일조각, 1965),『제주설화집성(1)』(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1985),『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한국구비문학대계 9-1 : 제주도북제주군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한국구비문학대계 9-2 : 제주도제주시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한국구비문학대계 9-3 : 제주도서귀포시·남제주군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제주도큰굿자료』(문무병 외, 제주도, 2002),『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현용준·강정식, 2006, 보고사),『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현용

준, 도서출판 각, 2007),『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강정식·강소전·송정희,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2008),『제주지역어 조사 보고서』(강영봉 외, 국립국어원, 2005～2007). 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들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발간 구술자료집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2004),『제주여성의 생애 : 살암시난 살앗주』(2006),『전통맥향 : 제주여성 무형문화재의 생애』(2007)

⑤ 지자체 주관 사업
『제주어사전』증보판 편찬 사업(제주특별자치도, 2006～2009),「멀티미디어 민속관광대사전」사업(2006～2008)을 통해서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 초기에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1]가 사회적 이슈였고, 여기에 한국어는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한 국가의 언어정책은 당연히 지역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위축된 사회분위기이지만 지자체별로 지역문화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 중심에 지역어가 놓여 있다. 제주도에서 제주어의 몸부림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지역문화의 확대재생산은 경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럴 즈음 제주어상표가 빛을 볼 것이다(제주마씸, 사단법인 제주올레, 자청비 상품 등).

Ⅲ. 제주어의 활용 실태

1. 제주어말하기대회

제주어가 대중매체의 조명을 받을 때는 문화, 문화관광, 탐라문화제기간이며, 2006～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에 제주어 조례가 제정되고, 2008년에「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으로 귀결된 느낌이다.

제주어를 기념하는 행사는 제주교원총연합회 주최나 탐라문화제 때 행해지는 제주어

1)『새국어생활』(18-2, 국립국어원, 2008. 여름호)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와 한국어>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관련 행사가 집중 조명을 받는다. 제주어말하기대회는 크게 아래 세 기관이고, 학교별 특별 운영프로그램으로 진행하거나, 여러 축제[「제주어말하기대회」, 정의골민속한마당, 2008. 10.11-12, 성읍1리 민속촌.] 시 제주어말하기 프로그램이 있다.

① 탐라문화제(←한라문화제) 기간(2008. 10. 2.~10. 6.)에 「제주어말하기대회, 제주어가요제, 제주어연극제, 제주민요」가 있어서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 때 「제주어말하기」[2]는 성황리에 끝난다.

② 제주교원총연합회(제주교총) 주관 「제주어말하기」[3](2003년 시작해서 2008년 제6회 : 2008. 9. 10.) 에는 제주도내 초중등학교에서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③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 2007. 3. 개원) 주최 「제주어말하기대회」[4](2007년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념 제주방언경연대회, 2008년에는 제주어말하기대회 개최) 는 한 사람 중심으로 말하기 성격을 잘 살려서 진행되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한글날 기념으로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2007년 제1회, 2008년 제2회)를 개최해서 한국어의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다.

④ 「제1회 전도 이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2007. 12. 1.) 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면서 제주어 말하기·듣기에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2007년은 제주민속문화의 해로 지정되면서 제주의 민속과 언어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결과물도 생성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2007년 9월에 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안」에는 탐라문화제 때 '제주어주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탐라문화제 때 이 주간(10. 3.~9.)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2. 제주어 관련 학술대회 및 간행물

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2002. 8. 제주언어학회) : "외국인 학교 설립, 영

---

2) 심사기준 : 제주어 구사 능력, 제주어휘 활용 정도

3) 심사기준 : 발음(정확성 : 25점), 어휘(적절성 : 25점), 억양(고유성 : 25점), 소재(흥미성 : 25점)

4) 심사기준 : 발음(30점), 어휘구사력(30점), 원고 내용(30점), 소요시간(10점)

어·일본어·중국어, 한국어 및 제주방언 정책”

②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 방안 연구』(2002. 12. 제주발전연구원)[5]

③ 『(제주국제자유도시의)언어정책과 과제』(김종훈 외, 2005)

④ 「‘언어 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 표준어, 지역어, 사회방언의 공존 모색」(2007. 5. 26. 국립국어원 주최) ; “방언의 국어교육적 의의”(강영봉)

⑤ 「올바른 제주어 보존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07. 7. 강창일 국회의원 주최) : “우리시대 제주어의 가치”(강영봉), “표준어는 어떻게 지역어를 억압했는가”(정선태)

⑥ 「제주어와 제주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2007. 10. 11.~12.,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은 세계 언어의 소멸과 보존을 논의하면서 제주어의 가치도 논의했다.

⑦ 「제주어, 어떻게 표기할까」(2007. 11. 영주어문학회·제주대국어상담소) :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강영봉), “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 : 제주방언으로 중심으로”(정승철), “형태에 관한 제주어 표기”(강정희) ⇒ 『영주어문』 15집(2008. 2.)에 수록되었다.

⑧ 「2008년 국제학술회의 : 제주민속의 산업화」(2008. 6. 27. 제주국제협의회·제주발전연구원) : “상품화, 관광 그리고 제주 돌하르방”(윌리엄 케넌 헌터), “제주어의 관광상품화”(강영봉) 등이 관심을 끌었다.

⑨ 「지역어 보존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2008. 11. 5. 강창일 국회의원·국립국어원) :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이 「국어기본법」 개정안과 「지역어 보존 및 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한(2008. 6. 23.) 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표준어, 지역어, 제주어의 가치’가 논의되었다.

학술대회 주제를 보면 2002~2005까지는 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을 다루면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상용화가 주 논쟁거리였다. 여기에 영어공영어화정책이 부분

---

5) 이 정책보고서에는 2002. 8. 제주언어학회 세미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목차를 보면 <서론, 영어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국어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방언 보전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어를 논의하면서 국어를 곁들었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라 제주어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본다. 2002년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문화, 지역민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제주어가 논의대상으로 등장했다.

적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어루만져주는 동작을 취했으며,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제주어가 동반 대우를 받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6년 '제주방문의 해', 2007년 '제주민속의 해'를 맞이해서 제주의 언어와 민속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언어의 힘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지역어는 지역의 힘이나 경제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주어에 대한 애정이 연구자 이외에 자치단체와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것은 제주도의 위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3. 제주어 관련 대중매체 자료

여기서는 제주어 관련 보도자료를 전부 제시하기 어려워서 주로 2006~2008 기사를 검색해서 정리했다.

① 제민일보 기획/문화 소식란에는 2006~2008에 제주어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를 보면 한라일보 특집기사에 소개된 개인과 단체가 소개되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누구나 제주어를 활용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제주항공 기내방송을 제주어로 하기(2007. 2. 15.)

※ 제주어 : 간판문화/교육(제주민속문화의 해 기획, 2007. 10. 1./15.)

② 민영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사투리 이구동심」(→사투리쇼 얼룩말, 2007. 5.~2008. 현재 : 제주도에서는 JIBS제주방송에서 방영함)

③ 제주MBC라디오특별기획「사라져 가는 제주어, 지금은」(제34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다큐 라디오부문 작품상 수상 : 2007. 7.)

④ 극단세이레극장, 제주어로 연극 공연「제주어로 말해! 배비장」(2008. 3.~4.)

⑤ <KBS제주어연구회> 발족(2008. 5.) : KBS제주방송총국 내 언론인 중심으로 조직해서 제주어의 보존과 실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이다.

⑥ JIBS제주방송「시선 집중 이것이 문제다 : 제주어가 사라진다」프로그램은 제9회 지역프로그램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방송문화진흥회, 2008. 6. 18.).

⑦ 제주특별자치도자연사박물관에서 주관하는「제주어 바로 알기」문화강좌(2007~2008),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보급(2007), 제주사투리시집 발간(양전형, 2008) 등이 있

다.

⑧ 한라일보 연재물「제주어 쓰게마씸」(2008. 1.~9. 20회 연재물)은 제주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개인과 단체를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2008. 1. 3.) : 이 단체는 제주 전래놀이, 전래동요, 민요 등을 제주어로 부르면서 활용하고 있다.

※ 제주어 카페지기 김익두(2008. 1. 17.) : 이 카페에서는 아래아마을을 개설해서 제주어를 홍보하고 있다.

※ 뚜럼 부라더스(2008. 1. 31.) : 제주어로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

※ 사투리시조집 발간한 고정국 시인(2008. 2. 14.)

※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2008. 2. 28.) : 이 단체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주어로 작품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제주어의 활용에 기여한다고 본다.

-「제주말씨 학생서예대전」(한글사랑 서예대전 때 학생부는 제주말씨 작품을, 일반부는 한글작품을 출품함. 2002년부터 시행됨)과「제주말씨 우리글 서예전」(한글사랑 회원전이며 1999년부터 격년제로 제주어 작품을 전시하고 있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제주사투리로 시를 창작한 고훈식 시인 소개(2008. 3. 13.)

※ 제주속담사전을 편찬한 고재환 교수 소개(2008. 3. 27.)

※ 우리문화연구소 '제주꽃놀래'의 제주어 보급 운동 소개(2008. 4. 10.)

※ 라디오프로그램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주인공 소개(2008. 4. 24.) : 진행자 양기훈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중간에 3~4년 제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주어의 맛을 정갈하게 전달하고 있다.

※ 제주마씸 상표 브랜드(2008. 5. 8.) : 2002년 개발한 제주도내 중소기업 공동 제주어브랜드(회장 한상용)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사투리마케팅이 진행 중이다. 영남권 은행 공동으로 '단디 카드'(단단히, 확실히, 빈틈없이 야무지게), 경상남도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예(韓牛之藝 : 경상도 방언 발음 연상)' 블로그 '간판으로 배워보는 경상도 사투리'가 등장할 정도이다.

※ 소리꾼 양정원(2008. 5. 22.) : 제주어로 작사한 제주어 가요 음반 제작자를 소개하고 있다.

※ 민요패 소리왓(2008. 6. 5.) : 이 단체는 제주민요를 부르면서 제주어를 사랑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제주방언구사기능인 고봉만(2008. 6. 19.) : 제주시 문화유산 무형문화분야 2호로 지정되었다(2006).

※ 놀이패 한라산(2008. 7. 3.) : 이들의 공연 대본은 제주어로 되어 있다.

※ 제주말큰사전 발간(2008. 7. 17.) : 한평생 제주어 연구와 조사에 몰두한 국어학자 송상조를 소개하고 있다.

※ 탐라문화제 '제주어말하기대회'(2008. 7. 31.) 회고 : 1992년 한라문화제 사투리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원동력을 소개하고 있다.

- 이 행사는 1992년에 '제주사투리말하기대회'(→제주말 말하기 대회→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사투리연극제'(대본을 제주어로 고치기)를 주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주어 활용과 보존에 기여했다.

※ 제주어보전회 탄생 소개(2008. 8. 14.) : 2008년 1월 허성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회원으로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마을별 제주어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며, 2008년 10월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었다.

※ 테러제이 자파리연구소(2008. 8. 28.) : 이 연구소에서는 제주어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고 있다.

※ 세화고등학교－제주형 자율학교 사례 소개(2008. 9. 11.) : 이 학교는 제주어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 정규교육기관에서 제주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2008. 10. 21. 제주KBSTV에 소개됨).

※ 국어문화연구원 소개(2008. 9. 25.) : 원장 강영봉은 제주어 보존과 표기법의 제정을 역설했다.

4. 국내 지역어 말하기대회 현황

제주도에서만 제주어의 열기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어를 활용·보존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① 「'웰컴투 강원도' 국회사투리대회」(2005. 11. 16. 국회 의정회관) :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강원도사투리대회를 개최했다.
②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2008. 6. 강릉단오장)
③ 「제1회 이북 사투리 경연대회」(2008. 8. 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속초지부) : 속초의 특성상 실향민들의 정체성, 공동체의식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④ 「제2회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2008. 9. 5. 경남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⑤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기념 전북방언경연대회」(2008. 9. 7. 전주대한국문화원) : 학생부, 일반부 10팀 참가해서 전북방언 말하기대회가 진행되었다.
⑥ 「제26회 영천문화제 방언대회」(2008. 10. 10.~13. 영천문화원) : 향토문화 홍보 스피치 및 지역방언 알리기에 기여했다.

Ⅳ. 제주어의 보존·활용 방안

1. 제주어 표기법 제정

앞에 제시한 제주어 구술자료는 주로 <제주방언연구회>(1991년 창립)에서 제정한(1995)「제주방언표기법」에 따랐다. 이 표기법도 완전한 협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어보존 정책에 표기법 제정이 들어가 있다. 한국어는 표준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정립되었다. 반면 지역어는 지역사람들끼리 담화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구어(口語)여서 문자로 기록할 기회도 적었지만, 기록물을 볼 기회도 드물었다. 그래서 제주어를 표기법에 맞게 써야 한다면 제주사람인 자신이 하는 말이 곧 법칙이라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 표기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제주어 표기법 설정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역어를 한국어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표준어를 사용할 때 맞춤법에 준하듯이 제주어를 표기

할 때도 여기에 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명사와 격조사,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 활용이 문제인데 이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원형을 밝혀 적는 원칙이 표준어와 동일하다. 다음은 언중들이 틀리기 쉬운 제주어 표기 몇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① 제주어 'ᄀᆞᆯ다(曰)'는 '말하다'는 뜻이며, 활용할 때는 'ᄀᆞᆯ으니, ᄀᆞᆯ아서, ᄀᆞᆯ앙, ᄀᆞᆯ고, ᄀᆞᆯ지' 등으로 쓰인다. 즉 읽을 때에는 [ᄀᆞ르니, ᄀᆞ라서, ᄀᆞ랑] 등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발음하지만 글로 쓸 때는 위와 같다.

② 제주어 종결어미 '-저'는 '-져/쩌'로 소리나도 '-저'로 쓴다. "밥 먹엇쩌."에서 '-쩌'로 소리 나더라도 '-저'로 써야 한다[먹엄쪄(×), 먹엄저(o)]. 이는 우리글의 특성상 소리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③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엇-'은 제주어형이며 '-었-'은 표준어형이다.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수-'는 '-쑤-'로 소리가 나더라도 '-수-'로 적는다[먹었쑤다(×), 먹엇수다(o)]. 또한 '하르방'이 맞는 표기법인데 '할으방/하루방'으로 표기하기는 경우가 있다.

④ 이 외에도 제주어로 상호명이나 음식명을 사용할 때 다른 모음이 쓰이는 단어에도 무조건 아래아(ㆍ)를 써 넣는다. 예를 들어 '도새기(o)→ᄃᆞ새기·몸국(o)→몸국(모자반국)·옵데강(o)→옵데강'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음식점 내에서 방 이름을 붙일 때 제주어를 사용한 것은 좋은데 표기법이 틀리기도 한다. 아래아는 변별력이 있는 음운이어서 이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 발음과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보말(o)→ᄇᆞ말, 모살치(o)→ᄆᆞ살치'로 표기한 음식점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아래아 검색이 안 되며, 아래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언중들이 이런 단어를 검색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모음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아는 제주어 표기법에서도 사라질 것이다.

제주어는 표준어처럼 대표어(표준제주어)를 설정할 수 없고, 각 지역의 말이 곧 대표어이므로 토박이화자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향토음식점 차림표를 보면 '깅이죽/겡이죽'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맞는 표기법이다.

간혹 초등학교에서 학년에 따라 제주어 관련 숙제를 내면 이를 도와주는 학부모가 어려워한다. 이는 제주어를 생활어와 교육어로 분리하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숙제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것이 있고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문자의 표기법이 낯설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어화

자들은 제주어로 표기된 문헌을 읽을 기회가 적고 쓸 기회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어 표기법의 보급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등 제주어를 표기할 경우 신문고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요식업 종사자와 간판업 종사자에게 홍보하거나, 협조문을 통해서 문의처를 단일화하는 것도 제주어 활용과 보존의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공공물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내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바람직하다. 이는 제주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어의 오남용도 해당된다.

2.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현시점에서 제주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면 저절로 배울 것이므로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본다. 우선 제주어 전용 구역을 '가정'으로 정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제주어 사용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로 확장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주어 사용 횟수를 늘이는 방안이 있다. 10~20대는 제주어 사용 빈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제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존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을의 역사, 전설, 지명' 등을 제주어로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면 역사와 제주어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학교는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중요한 교육 기관이다. 교사에 따라서 제주문화 알아보기, 제주어 알아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어인 경우 어휘 조사하기 정도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언어 교육에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재미를 곁들인 놀이 형태의 언어 교육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주면 좋을 듯하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제 수업시간을 배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제주형 자율학교[6]에서 교과과정 선택이 자유로우므로 제주어 교과 채택이 가능하다. 세화고등학교는 2007년부터 제주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선택해서 1학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교육하고 있다.

교육공간을 떠나서는 제주어의 활용과 보존이 곤란하다. 우선 제주사람들이 집에서

---

6)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 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9개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5개교(제주북교, 광양교, 광령교, 대흘교, 서귀포교), 중학교 3개교(함덕중, 신엄중, 남원중), 고등학교 1개교(세화고) 등이며, 이 학교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및 국내외 교과서 자율선택이 가능하다(국어, 사회, 도덕 교과서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트 참조).

의도적으로 제주어담화공간을 만들어 준다. 학교에서 공적인 시간 이외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제주어를 쓰도록 종용한다. 이때 제주도라는 특정 공간에서는 제주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하는 다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지역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지역어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어의 교차 사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의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제주어, 한국어 습득은 필수이지만, 이주여성들의 모국어 사용 공간 제공도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다문화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경직성을 버려야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다양성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이 제주문화를 살리는 길이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이 될 것이다.

3. 제주어 활용

제주어 활용 방안에는 문학작품창작, 학교교육, 대중매체, 각종 대회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기대회'를 살펴보았다. 제주사람들은 제주어경연대회를 통해서 제주어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래 단체가 주관하는 제주어말하기대회는 제주어 활용 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원고 내용과 발음, 표기법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2008년에 있었던 제주어말하기대회 제목을 소개하겠다.

①「제47회 탐라문화제 제주어 말하기 대회」(2008. 10. 4. 서귀포시 천지연야외공연장) 출연 작품은 총 19편이며, 이 중에서 대화체로 2명이 등장하는 작품은 2편이고, 17편은 모두 연극으로 꾸며졌다.

※ 초등부 6편 : [오널은 우리집 식겟날, 우리 사는 모실이 질 입쭈, 내 ᄂᆞ린 물 질어당 먹어봅데강, 어디강 답도리허코, 어멍 고마운 거 ᄀᆞ랑 몰라, 쉐 풀앙 줍디다]

※ 중등부 5편 : [본향당에 빌래감수다, 제주도 잘 알락 퀴즈 대회, 어웍도 쓸 디 하나 수다, 토끼의 재판, 잼이 뜸만 못허느네]

※ 고등부 4편 : [멜 거리레 가게 마씸, 먹돌에도 굼기 나곡, 쇠도 “황-” ᄒᆞ민 돌아선다, 아덜이영 아방이영 동네 ᄒᆞᆫ 번 걸어봅쭈,「돔비」들의 웃음벨탁]

※ 일반부 4편 : [배 쫓아온 시신, 의논 허멍 삽주 양, 모물범벅, 잠시 똠을 건불리멍]

②「제6회 제주어말하기대회」(2008. 9. 10. 제주교총이 주관) 출품작은 총 14편이며, 2편만 말하기이고 그 외에는 연극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초등부 10편 : [이녁 땅, 이녁 바당이서 난 먹거리가 최고우다!, 우리 사난 모실이질 입쭈, 쉐 폴앙 줍디다, 오널은 우리집 식겟날, 베트남 메노리 몸국도 잘 멩글암신게마씸, 느 어떵 ᄒᆞ당, 내 ᄂᆞ린 물 질어당 먹어봅데강, 어둑은 날 시민 붉은 날 싯나, 식게, 소분 몰랑사 사름이라!, 제주에 시십 잘 와져수다]

※ 중등부 1편 : [제주도 잘 알락 퀴즈 대회]

※ 고등부 3편 : [제주 속담 공부, 산방덕 이야기, 제주도의 고유 음식 빙떡 자랑]

두 기관에서 주관하는「제주어말하기 대회」는 연극적 요소가 가미되었고, 대본이 제주어로 작성되었다. 제주어말하기 원고는 처음부터 제주어로 작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표준어로 작성한 다음 제주어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마을이나 주변에서 제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발음과 억양 지도를 받는다면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제주어말하기대회」는 연극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제주어연극대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연극대회로 가고「제주어말하기대회」는 본질을 살려서 시행하는 것이 제주어 활용과 보존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말하기대회는 1~2인역이어서 단순하고 단조로워서 흥미성, 관객동원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말하기대회가 연극형태로 흐르는 것은 표준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대회를 앞두고 제주어를 연습해도 말하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원고를 외우기도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극적인 상황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이런 단점을 잘 알면서도 보완이 어려운 것 같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제주어 사용 기회도 적지만 연습할 시간도 부족해서 참가학교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대회는 교사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행사 참여율이 달라지며 방과후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Ⅴ. 제주어 문화정책

한국의 언어정책(국어)은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하다. 다만 영어 전용구역, 상용, 공용 등 외국어 정책만 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 영어의 위대함을 광고하고 있으며, 한국어는 뒷전이다. 이런 마당에 지역에서 지역어 활용과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지 의문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서 다문화[7]가 본격적인 담론이 되었다. 다문화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소통도구인 언어가 공존할 때 가능하다. 지금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어만 논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언어정책은 한국어 외에 여러 지역어를 가르치고, 지역어로 표현되는 지역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한국 거주 외국인과 공존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는 이주여성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 개발 중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제주어교육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생활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제주어의 묘미를 아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외 언어정책을 보면(한국일보 기사, 2008. 6. 18.)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각 지역 언어들도 프랑스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려고 하면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방언 지위 향상에 반대 입장)와 마찰을 빚었다.

> 프랑스 5공화국 헌법에는 “프랑스어만이 국가의 유일한 공식 언어”라 명시한 이후 경직된 표준어 정책을 펼쳐왔다.
>
> 프랑스 내에는 브르타뉴어, 알사스어, 오크어, 코르시카어 등 총 75개의 지역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1930년대 이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가족과 대화할 때 지역언어를 사용할 정도였으나, 정부의 강경한 표준어 정책으로 사용자가 급감했다. 유네스코는 프랑스 지역 언어가 “사멸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
> 소수 언어 사용자들은 이익집단을 형성해 지역 언어로 교육하는 학교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브르타뉴 지역구 출신의 한 의원은 “브르타뉴어아 알사스어로 말하고 노래한다 해서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언어 보호를 촉구했다.

7) 『새국어생활』(18-1, 국립국어원, 2008. 봄호)에서는 <다문화사회와 한국어>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위 기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의 언어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학교교육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어 보급에 열성을 보였으며, 그 결과 표준어와 지역어(방언)의 분리·차별의식이 형성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현실은 지역어로 교육하는 학교 세우기는 시기상조이나 이를 극복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로 제주어(지역어)를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교사양성 시에도 적절한 시간을 배당하여 제주어가 교육과정에 공식어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언어정책으로 「국어기본법」(2005. 7. 시행)이 제정되었으며, 제6조에는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어 있으며, 그 중에 '국어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언어정책으로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실현 가능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결과물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기다려주며, 제주어의 영속성을 위하여 더디지만 완주할 각오로 제주어를 사랑하는 것이 언어의 소멸을 막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어(표준어) 정책에 몰두하는 동안 지역어의 차별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는 시도가 있었다. 2006년 5월(<탯말두레>)에 '표준어규정위헌소송'을 제기해서 '표준어중심의 어문정책을 폐지하고 지역어를 학교의 정규과정에 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대전지법에서는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서 '성(姓)씨 두음법칙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역사람들이 지역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를 보존하려는 의식이 대두되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한국의 공통어인 표준어만 강조하다 보면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어의 말살이 분명하며, 지역의 문화유산 소멸에 일조한다는 관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간간이 지역어가 소개되기는 하지만 노출 정도에 따라 낯설기의 강약이 있다. 지역어를 사용하고 존중하려는 정책이 곧 문화정책이며 이러한 언어가 살아남아야 제주의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제주의 젊은 세대들이 제주어 사용을 기피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제주어로 기록된 구술자료들이 10년 후, 20년 후 읽거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국어학자들이 중세문헌자료를 판독하고 해석하는 수준으로 제주어는 화석화된 언어가 될 것이다.

제주어 활용과 보존을 위한 언어정책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우선 제주도내에 있는 박물과, 도서관, 문화의 집(주민자치위원회 중심) 등에서 제주어코너를 만들 수 있다. 제주어체험하기, 제주어 녹취 음성 듣기, 표준어로 다시 듣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주어체험의 날'을 지정하는데 방법은 주·월·분기별 각 1회씩 정하거나 방학기간을 활용한다. 이 날은 박물관 해설사는 모든 방문객에게 제주어로 설명해주고, 제주어로 묻고 답하기 코너 설치, 제주어구연자와 방문객이 대화하기 코너 설치 등 제주어체험 방법은 다양하다. 제주도는 관광지여서 관광업 종사자들의 힘이 절대적이다. 이들이 제주어를 잘못 알려주면 언어의 오·남용으로 언어 공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문법교육이(제주어 음운, 문법, 의미, 유래 등) 필요하다.

제주도 방문객과 안내자가 제주어로만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제주어로 음식점에서 주문하기, 길 찾기, 관광지 찾아가기 등). 이때 음식점 입구에 '이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주어만 사용하기' 등 특정 안내문을 써 붙이기, 제주어 사용 전용 구역 정하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에 제주어 관련 고정란(－나도 한마디, 제주말 배워보기 등－)을 만들어서 홍보하기가 필요하다. 이는 외국어 배우기와 비교하면 된다.

한글학회가 주관하는「아름다운 가게 이름 시상식」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서 연 1회 아름다운 제주어상호명 조사 및 시상식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어주간에 '제주어 글짓기대회, 제주어 노래 부르기, 제주어 구연하기, 제주어 시낭송, 제주어 연극, 제주어말하기, 제주어 영화(영화 대본에 제주어를 일부 삽입하기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제주어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Ⅵ. 제주어의 가치 논의 초월

지금까지 제주어의 현실과 위상을 살펴 보았듯이 제주교총과 제주연극협회가 주관하는「제주어말하기대회」, 여러 축제에 따라 간간이 첨가되는 <제주어로 말하기, 가요부르기, 민요 부르기 , 학교별 대회,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음악, 연극, 서예, 문

학작품> 등 예술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경제 분야를 보면 상호명, 상표명, 음식명, 제주문화콘텐츠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정도이다. 제주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제주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마다, 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부정기적인 업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테마마을/역사마을만들기의 주 관심은 관광산업에 몰려 있으며, 마을의 고유문화를 찾아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면 결국 제주어로 명명된 산물들이 해당된다. 사람들은 주로 가시적인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 물질을 표현하는 제주어가 없다면 어떻게 고유한 맛을 살려서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은 국가 간 지역 간 문화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역사람들의 정체성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빨리 깨닫고 극복하려는 의지는 결국 해당 문화 소유자들의 몫이다.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제주어는 제주문화의 근간이므로 언어정책은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어가 제주사람들의 정신문화·물질문화의 근간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이를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확립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제주사람들이 제주어를 사용하려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어떠한 제도나 방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더구나 제주사람들은 외지인을 만났을 때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의식이 강해서 제주어의 노출에 소극적인 편이다. 이런 점이 제주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제주어로 명명된 문화적 산물이 생활화가 되면 제주의 무형문화유산이 살아남게 되고 제주도도 더불어서 살아남을 것이다.『제주문화상징』에는 제주어의 가치가 잘 드러난다. 선정된 항목 중 제주어로 살아남은 것에는 '제주어,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오름, 돌담, 곶자왈, 내창, 검은도새기, 검은쉐, 폭낭, 잣성, 원, 테우, 허벅, 정낭, 테우리, 빙떡, 자리회, 소금빌레, 수눌음, 돗통시, 오메기술·고소리술, 물방애, 애기구덕, 궨당과 삼촌, 몸국, 신구간, 설문대할망, 돌하르방, 동자석, 당, 심방, 자청비, 본풀이, 삼승할망, 이어도' 등이며, 이 단어에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찾기 측면에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이것이 제주의 문화산업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8] ※

강정희(200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제주사회 변화와 제주방언의 변화”,『새국어생활』17-4(겨울호), 국립국어원.

김윤경·김영서 역(2001),『언어전쟁』, 한국문화사.

김정화 역(2003),『사라져 가는 목소리들 : 그 많던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제이북스.

문순덕(2003),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문순덕(2007a), “제주어의 어학적 가치와 보존 방안”,『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5집, 제주문화예술재단.

문순덕(2007b), “제주방언의 자리매김”,『제주특별자치도』111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순덕(2007c), “꺼지지 않는 제주방언의 저력”,『문화북제주』4호, 북제주문화원.

박영준 외 4 (2003),『한국어가 사라진다면』, 한겨레출판사.

오창명(2005),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영주어문연구회』10.

이익섭(2000),『사회언어학』, 민음사.

제주특별자치도(2008),『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2008),『제주여성문화유적』.

8) 본문에서 출처를 밝힌 자료는 생략했다.